

마르지 않는 국어공부의 기쁨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에서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까지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남달리 저술에 정력적이지 않았는데도 이력저력 10여권의 책을 썼다. 그 중에는 정말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쓴 것이 있고, 주위의 상황에 밀려 속제하듯이 쓴 것도 있다. 어느 경우나 한편의 책을 쓴다는 것은 세상만사 다 뒤로 젖혀두고 온갖 안간힘을 다 하는 일이어서 10여권을 한 자리에 꽂아 두고 보면 여러가지 상념(想念)이 절로 일 수밖에 없다.

10년 걸려 펴낸 첫 논저

내 책에는 교재 성격의 것이 많다. 그야말로 주위의 권유에 따라 그렇게 된 면도 있으나, 그것은 내가,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땅한 교재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학계의 후진성은 부실한 교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만큼 국어학 관계의 교재는 한두 책을 빼고는 적합한 것이 없었다.

어느 분이 정년을 맞으시며 하시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문법 교재가 마땅치 않아 고생하다가 작년부터 선생님의 《국어문법론》(1983, 학연사)으로 기본 좋게 가르쳤는데 글썽 정년이지 뭐예요” 했던 것이다. 《국어학개설》(1986, 학연사)에 대한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다. 학회 같은 데서 낮모르는 젊은 교수들로부터 “선생님 책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는 인사를 몇번이나 받았던 것이다. 고맙기는 내가 고마운데 그들이 고맙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재 때문에 오랜 고생을 겪어 보았던 터라 그 심정은 이해되고도 남았다.

내 처녀작이 뭐냐고 물으면 좀 망설여진다. 보통 논저 목록을 써 낼 때는 대개 이 책은 빼는데 그것이 내 이름으로 나온 첫 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국어문법》(1970,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연구소)이 그것이다. 국내 대학에 진학할 제일 교포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의 하나로 낸 것인데 학술서도 아니어서 논저목록에서는 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구해 보기 어려운 책을 오즈음도 찾는 사람이 있고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 막상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람들은 내 관심이 넓고 다양하다고 한다. 학생시절 국어학계는 너무 편협돼 있어 우선 거기서 떠나고자 했고,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문법에 덤벼들었으며 황무지인 방언론과 문지론 개간에 뛰어들었다. 나의 책들은 새 분야에 대한 관심의 결실인 셈이다. 이처럼 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기쁨이 지금껏 마르지 않는 것에 늘 감사한다.

만일 《새국어문법》을 논저목록에서 빼다면 그 첫자리에는 《영동(嶺東) 영서(嶺西)의 언어분화(言語分化)》(1981, 서울대출판부)가 올 것이다. 강원도 전역(全域)을 면(面) 단위로 방언분포를 조사하여 방언구획을 하고, 권말에 언어지도까지 덧붙인 책으로 내 학위논문이기도 하다. 자료를 모으는 데서부터 따지면 한 10년 걸린 작업이니 이래저래 나로서는 가장 힘든 책인 셈이다. 한참 후에 출간한 《국어 표기법 연구》(1992, 서울대출판부)와 아울러 순수 학술적인 책이기도 하다. 뒤의 책도 노력이 많이 든 책이지만, 그리고 어느 책을 쓰고 나서도 거의 비슷한 심정이지만,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를 쓰고 나서는 이제 누가 이 일을 처음부터 새로 하려면 억만금을 준대도 못하겠다는 심정이었다. 꼴도 보기 싫어 거의 덮어쓰는 그 책을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았던 듯하다.

다양한 관심으로 국어학 개간

사람들은 내 관심이 넓고 다양하다고 한다. 전공을 국어학이라고까지 쓰지 않을 경우엔 고민이 없는데 더 세분해 써야 할 경우엔 문법론·방언론·문지론 중 어느 것을 써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다. 다 쓰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같지 않고

어느 하나, 또는 둘을 쓰려면 나머지가 아깝고 그런 것이다.

사실 이런 정도를 반드시 관심이 넓다고 할 수도 없다. 아무리 가 봐야 국어학 손바닥 안이고, 국어학 안에서 구결(口訣)을 비롯해 그 부근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더라도 문법론이면 문법론 하나에 매달려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글썽 그야말로 관심이 이것저것으로 쏠렸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학생 시절의 국어학계는 너무 편협되어 있었다. 거의 15세기 국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몰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선 거기서 떠나고자 하였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문법에 덤벼든 것이 그 첫걸음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황무지인 곳이 방언론이고 문지론이었다. 나로서는 이런 곳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국어학이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국어 표기법 연구》의 머리말에서 언제 기회가 되어 《문지론》이란 책도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말이지 이 땅에, 문자 내지 표기법에 대한 우리 학계의 전근대적 사고(思考)를 고쳐줄 좀 잘된 문지론 하나쯤

있었으면 한다. 《방언학(方言學)》(1984, 민음사)은 내가 발동을 걸어서 쓴 것이 아니고 선배님의 강권(強勸)을 이기지 못해 쓴 것이기는 하나, 지금 문지론 쪽에서는 비어 있는 자리가 방언론 쪽에는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방언학》은 ‘대우학술총서 13’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언어학(社會言語學)》(1994, 민음사)도 ‘대우학술총서 75’로 내게 되었다. 모두 새 분야에 대한 관심의 결실일 것인데 이처럼 계속 미지(未知)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주고, 그로써 공부하는 기쁨이 지금껏 마르지 않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다.

나의 최근작이라면 《한국의 언어》(1997, 신구문화사)와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1998, 문학사상사)일 것이다. 앞의 것은 지금 영어 번역이 끝나 미국에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애초 그 대부분으로, 내가 편집 책임을 맡고 나와 채완, 이상익 셋이 공동집필한 것으로 우리말판을 기획했던 것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아 우리말판으로도 내게 된 것이다. 호응이 좋아 많이 읽히고 해외 동포들, 특히 거기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미 많이 보급되었지만 그보다는 영어판이어서 나와 우리말이 좀더 널리 바로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그리스-로마의 고전

'인터넷 클래식스 아카이브' 사이트

허명구 · 하인학술정보 대표

알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책 머리말의 한 부분을 쓰며 나는 울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울컥인다.

"한국어는 이제 결코 한반도 안의 언어가 아니다. 이 놀라운 발전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솟곤 한다. 초등학교에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였다. 우리말을 쓰면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소변이 마려워도 말 한마디 못하던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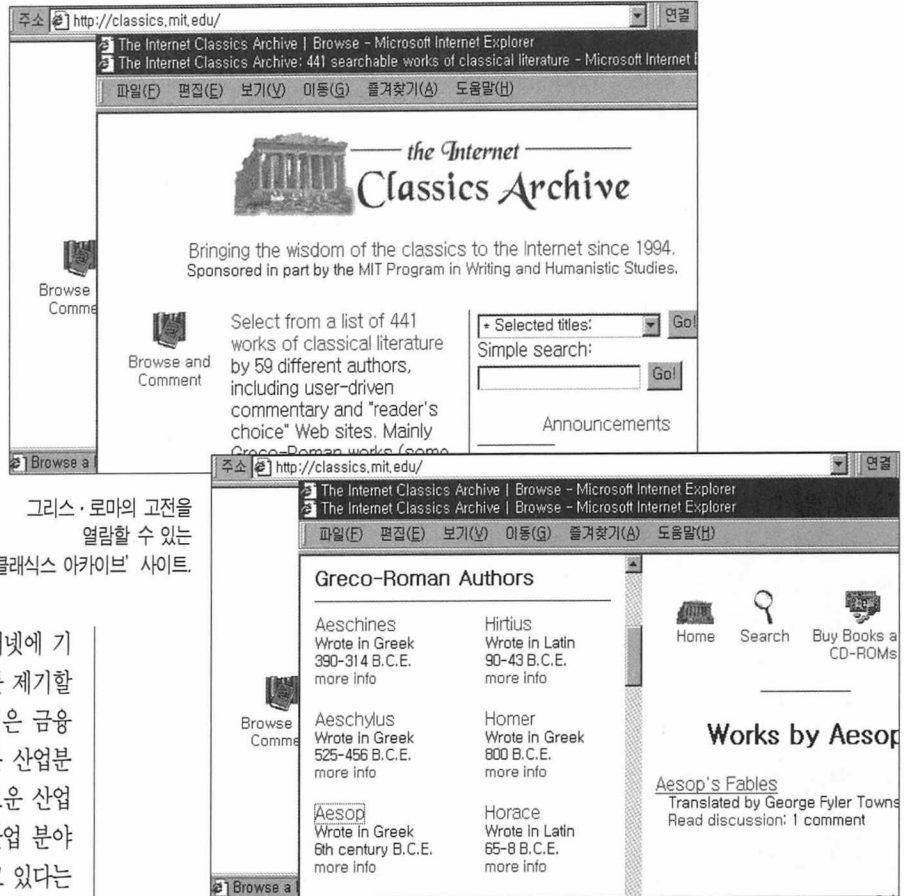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각별한 정성을 들여 썼다. 그리고 쓰면서 내내 흥분 상태였다. 너무 무리해 이 책은 내 건강을 많이 버리기도 했다.

국어생활은 문화의 천경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은 그동안 썼던 논설적 성격의 글을 모은 것이다. 금년에 제자들이 환갑기념논문집을 만들어 준다가에 거기에 맞추어 가벼운 글들을 모아 본 것이다. 우리 맞춤법 내지 한글의 원리와 특성, 표준어의 기능,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 방언의 묘미 등 그동안 사회 내지 학계를 향해 외쳐오던 내용들이다. 책을 묶으면서 잡문은 안 쓴다고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참 많지도 썼구나 싶었다. 국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는 척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고집에 빠져 있는 몽매함이 안타까워 같은 소리도 또 하며 열을 올린 흔적이 역력하였다. 사실 국민들의 국어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첩경이라는 내 믿음에는 그제나 이제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은 국민들에게 많이 읽힐수록 좋을텐데 하는 좀 계면쩍은 생각도 하고 있다.

지금 개정판을 내기 위해 손질하고 있는 책도 있고,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속제로 받아 놓은 책도 있다. '나의 최근작'에 대해 좀더 멋진 이야기를 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즐거움에 늙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경지도 그러면서 맞볼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

94년부터 MIT에서 운영, 그리스·로마 고전의 영역 전자문서를 볼 수 있는 이 사이트에는 소크라테스·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이솝·호머류에 이르기까지 59명 저자의 441개 문헌이 들어 있다. 검색창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열람할 수 있는 '클래식스 아카이브' 사이트.

21세기를 선도할 산업으로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정보산업을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보산업은 금융에서 유통·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분야의 인프라를 바꿀, 말하자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관차다. 그리고 이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앞선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처럼 정보산업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선도성을 갖게 된 것은 또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는 것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발전 초기에 형성된 학술분야에서의 정보공개 및 공유의 전통은 감탄할 만하다. 식견이 짧은 상인의 눈으로 보기에 모두 '돈'이 되는 정보가 전부 무료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학문적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후 미국의 정보상품의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되었다. 웬만하면 다 무료이니 적어도 돈을 받으려면 그보다는 높은 질을 갖는 정보상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별것 아닌 정보도 나만 알자고 쉬쉬하는 풍토에서는 정보산업은 발전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정보의 무료공개와 정보산업 즉 정보판매를 통한 이윤의 창출은 이처럼 긴장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것이다. 출판업 또한 정보산업의 중요한 분야이니 이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

야 할 듯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이트는 말하자면 그러한 정보공개의 전통이 잘 드러나는 사이트, 짧은 소견으로 보면 돈으로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 중의 하나다. 인터넷상의 그리스-로마 고전모음 사이트인 '인터넷 클래식스 아카이브' (<http://classics.mit.edu/index.html>)가 그곳이다. 이곳은 1994년부터 MIT에서 운영하는 그리스-로마 고전(중국 및 페르시아 고전 일부 포함)의 영역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값진 사이트다. 소크라테스·히포크라테스 등에서부터 이솝·호머류에 이르기까지 59명의 저자의 441개의 문헌이 들어 있으며 모두 영역원문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사이트의 자료는 크게 두 곳, 즉 버지니아 테크(Virginia Tech)의 에리스 프로젝트(Eris Project) 그리고 터프스 대학(Tufts University)의 페르세우스 프로젝트(Perseus Project)에 힘입어 마련되었다고 한다. 여기 자료들은 다 영역자료들이

며, 라틴어나 희랍어 원본 전자문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워싱턴대학의 프로젝트 리벨루스(<ftp://ftp.u.washington.edu/public/libellus/texts>), 주로 라틴어 원본을 소장), 그리고 위의 페르세우스 프로젝트(<http://www.perseus.tufts.edu/>), 주로 희랍어 원본 소장)를 찾으면 된다. 검색창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브라우저를 통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저자목록을 보면서 찾을 수도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도록. ❖